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8호 [주제 제25341호] 주제 105 (2016)년 7월 16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6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
위원회 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6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
의 군인가족예술
소조공연을 관람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지휘
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자나깨나 그리
던 경애하는



군인가족들은 군중
문화예술활동을 벌
리는 과정에 우리
당의 사상을 자기
의 뼈와 살로 만들
뿐만 아니라 대중
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
킨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앞
으로도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을 마
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
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이었다.

공연에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
제526군부대, 제337군부대, 제534군부대,
제963군부대, 조선인민군 해군의 군인가족
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였다.

출연자들은 우리 운명의 하늘이
시고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을 믿고 따르는 길에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
직하고 신심과 탁판에 넘쳐 혁명적
으로 생활하는 군인가족들의 고결
한 사상정신세계를 격조높이 구가
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당의 선군혁명명도들
제일선에서 받들어나가는 어엿한

너성혁명가들로 자라난 군인가족
들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 광만
파 최열에 넘친 생활을 감명깊이
노래하였으며 총잡은 남편들의
부사수가 되고 병사들의 어머니
가 되어 헌신을 바쳐가는 군인가
족들의 투쟁을 실감있게 보여주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명도따라 백두의 칼바람마
냥 폭풍쳐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
리의것이라는것을 힘있게 과시한
종목들로 하여 공연무대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공연이 끝나자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더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에
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대에 오른 모든 종목들은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선군시대 인간들의 투쟁과 생활
에서 나서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사상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였다고 하시면서
오늘공연은 당의 사상으로 일색
화된 공연, 당정책이 맥박치는
공연, 당정책학습제강과도 같은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군부대들
마다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 현시기 당에서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정책적문제들을

가지고 선동력과 호소성이 강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렸
다고 하시면서 인식교양적의의
가 크고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
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공연을 통하여 군인가족예술
소조경연을 마련해주시고 전통화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당의 군중문화
예술방침관철에서 온 사회의
앞장에서 나아가고있는 군인가족들
의 사상정신상태가 대단히 높다
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당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군인가족예
술소조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말 큰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기 제6차 군인
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
부대들의 예술소조원들이 군중문
화예술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감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투
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
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공연에 참가한 군인가족예술
소조원들은 총정의 200일전투
를 전투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천금같은 시간
을 내시어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
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배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
을 누르지 못하면서 김정은동지
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
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